붉은 죽음의 가면

The Masque of the Red Death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Masque of the Red Death" (1842)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 죽음'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토록 치명적이고 끔찍한 역병은 전례가 없었다. 붉은 피는 이 재앙의 화신이자 상징이었다. 피의 붉은 빛과 그 공포가 곧 재앙의 본질이었다. 환자는 날카로운 통증과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고 나면 모공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곧바로 죽음에 이르렀다. 희생자의 몸과 특히 얼굴에 남은 선명한 핏자국은 저주받은 낙인이 되었다.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은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누구도 도움이나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질병이 발병하여 진행되고 끝을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스페로 공은 행복했고, 용맹했으며, 영리했다. 영지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그는 궁정의 기사와 귀부인들 중에서 건강하고 낙천적인 친구 천 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성채 수도원 중 한 곳으로 들어가 깊은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그 수도원은 광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로, 괴짜 같으면서도 위엄 있는 공의 독특한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수도원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성벽에는 철제 문이 달려 있었다. 궁정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간 뒤, 용광로와 육중한 망치를 가져와 문빗장을 용접해 버렸다. 그들은 내부에서 일어날 절망이나 광기 어린 충동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드나드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수도원 안에는 식량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다면 궁정 사람들은 전염병에 맞서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바깥세상은 알아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었다.

그사이 슬퍼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공은 즐거움을 누릴 모든 수단을 마련해 두었다. 광대와 즉흥 시인, 발레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있었고, 아름다움과 포도주도 있었다. 이 모든 즐거움과 안전은 성벽 안에 있었다. 성벽 밖에는 오직 '붉은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다섯 달 혹은 여섯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바깥세상에는 역병이 맹렬하게 창궐하고 있었으나, 프로스페로 공은 천 명의 친구를 초대해 유례없이 화려한 가면무도회를 열었다.

그 가면무도회는 참으로 관능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도회가 열린 방들에 대해 먼저 말해두려 한다. 방은 총 일곱 개로, 황실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연회용 구조였다. 보통의 궁전에서는 이런 방들이 길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양옆의 접이식 문을 벽 쪽으로 밀어두면 전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곤 한다.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다. 기괴한 것을 즐기는 공작의 취향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방들은 매우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한 번에 한 방 정도만 겨우 시야에 들어왔다. 20~30야드마다 급격한 모퉁이가 나타났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각 방의 벽 중앙에는 높고 좁은 고딕 양식의 창문이 하나씩 있었다. 이 창문들은 방의 배치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폐쇄된 복도를 향해 나 있었다.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색깔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의 장식 색상에 맞춰 제각각 달랐다. 예를 들어, 동쪽 끝에 있는 방은 푸른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방의 창문 역시 선명

한 푸른빛을 띠었다. 두 번째 방은 장식과 태피스트리가 모두 보라색이었으므로 창유리 또한 보라색이었다. 세 번째 방은 전체가 초록색이었고 창틀 역시 초록색이었다. 네 번째 방은 주황색으로 꾸며지고 조명되었으며, 다섯 번째는 흰색, 여섯 번째는 제비꽃색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은 천장부터 벽면까지 검은 벨벳 태피스트리로 빈틈없이 덮여 있었고, 바닥의 카펫 또한 같은 재질과 색상으로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오직 이 방에서만 창문의 색이 실내 장식과 어울리지 않았다. 이곳의 유리창은 핏빛처럼 짙은 진홍색이었다.

방 안에는 금빛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천장에 매달려 화려함을 더했지만, 일곱 개의 방 그 어디에도 등잔이나 촛대는 없었다. 방 내부에서 등잔이나 촛불을 통해 나오는 빛은 전혀 없었다. 대신 방을 따라 이어진 복도에 각 창문과 마주 보게 놓인 육중한 삼각대들이 있었다. 그 위에는 화로가 놓여 불을 피웠는데, 그 불빛이 색유리를 통과해 방 안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덕분에 화려하고도 기묘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서쪽 끝에 있는 검은 방은 달랐다. 진홍빛 유리창을 통과한 불빛이 어두운 커튼 위로 쏟아져 내릴 때면, 그 모습이 지독하리만큼 섬뜩했다. 그 광경은 안에 들어선 이들의 얼굴을 너무도 사납게 일그러뜨려서, 그 방에 발을 들이는 이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방의 서쪽 벽에는 거대한 흑단 시계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시계추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단조롭게 앞뒤로 흔들렸다. 분침이 시계판을 한 바퀴 돌아 정각을 알릴 때면, 시계의 놋쇠 폐에서는 맑고

우렁차며 깊고도 매우 음악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음조와 강조점이 워낙 기이하여, 매 정각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를 잠시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 소리가 울리면 왈츠를 추던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동작을 멈췄다. 즐거움에 취해 있던 일행 사이에는 잠시 당혹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시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가장 흥에 겨워하던 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나이가 지긋하고 침착한 이들은 마치 혼란스러운 상념이나 명상에 잠긴 듯 이마를 짚었다.

그러나 메아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모임에는 곧 가벼운 웃음꽃이 피어났다.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긴장과 어리석음을 비웃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다음번 종소리가 울릴 때는 결코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노라고 서로에게 속삭이며 다짐했다. 하지만 60분이라는 시간, 즉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의 3,600초가 지나고 다시 시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전과 똑같은 당혹감과 떨림, 그리고 깊은 명상이 다시금 현장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성대하게 계속되었다. 공의 취향은 남달랐다. 그는 색채와 시각적 효과를 포착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격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강렬했으며, 그가 구상한 것들은 야성적인 광채를 내뿜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가 결코 미치지 않

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려면, 직접 그를 만나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했다.

프로스페로 공은 이번 대축제를 위해 일곱 개의 방을 장식할 가구와 소품들을 상당 부분 직접 지시했다.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 것 또한 공의 주도적인 취향 덕분이었다. 그 모습은 분명 기괴했다. 눈부신 광채와 화려함, 자극적이고 기묘한 환상들이 가득했다. 마치 연극 '에르나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팔다리와 장식이 어울리지 않는 아라베스크 문양의 형상들도 보였다. 미치광이가 만들어낸 듯한 망상에 사로잡힌 환상들도 있었다. 아름다움과 방탕함, 기이함이 가득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법한 요소들도 적지 않았다. 사실, 일곱 개의 방 사이로는 수많은 꿈이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이 꿈들은 방의 색채를 머금은 채 꿈틀거렸고, 오케스트라의 격정적인 음악은 마치 그 꿈들이 내딛는 발소리의 메아리처럼 들릴 정도였다.

그러다 이윽고 벨벳 홀에 놓인 흑단 시계가 울렸다. 그 순간, 시계 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꿈들은 서 있는 채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하지만 종소리의 여운은 찰나에 불과했기에 곧 사라졌고, 소리가 잦아들자 그 뒤를 따라 희미하고 억눌린 웃음소리가 떠돌았다. 다시 음악이 고조되자 꿈들은 생동감을 되찾았다. 삼각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다채로운 창을 통과해 쏟아지자, 꿈들은 그 빛깔을 받아들여 이전보다 더욱 즐겁게 이리저리 꿈틀거렸다.

하지만 밤이 저물어가면서, 일곱 개의 방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방에는 감히 발을 들이는 가면무도회객이 아무도 없었다. 피처럼 붉은 유리창을 통해 더욱 붉은 빛이 흘러 들어왔고, 검은색 커튼의 어둠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 검은 양탄자 위를 걷는 이에게는, 다른 방에서 즐겁게 노는 이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훨씬 엄숙하고 강렬한 흑단 시계의 둔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다른 방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곳에는 삶의 열기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축제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 음악은 멈췄고, 왈츠를 추던 이들의 움직임도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불안한 정적 속에 잠겼다.

시계 종은 열두 번을 울렸다.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축제를 즐기던 이들 중 사색에 잠긴 이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군중 속의 많은 이들이 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던 존재였다.

이 낯선 존재에 대한 소문이 속삭임처럼 번져 나갔다. 이윽고 연회장 전체에는 비난과 경악이 섞인 웅성거림이 일더니, 마침내 그 소리는 공포와 전율, 그리고 혐오가 담긴 소리로 변해갔다.

내가 묘사한 환상적인 무리 속에서라면, 평범한 모습으로는 결코 이런 소동을 일으킬 수 없었으리라. 사실 그날 밤 가면무도회의 허용 범위는 거의 무제한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문제의 그 인물은 헤로데 왕

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파격적이었고, 공이 정해둔 막연한 예의의 경계마저 넘어섰다. 아무리 무모한 자라도 마음속에는 건드리는 순간 감정이 북받치는 현이 있기 마련이다. 삶과 죽음을 똑같이 농담처럼 여기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에게조차, 결코 농담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 법이다.

실제로 무도회에 모인 모든 이들은, 낯선 이의 복장과 태도에 위트도 품격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듯했다. 그 형체는 키가 크고 수척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덤에서 꺼낸 듯한 수의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게 굳어버린 시체의 얼굴을 닮아 있어서, 아무리 면밀히 살펴본다 해도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주변의 광란에 빠진 축제객들이 비록 그 모습을 찬성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이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광대는 '붉은 죽음'의 형상까지 흉내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넓은 이마를 비롯한 얼굴의 모든 이목구비에는 붉은 공포가 흩뿌려져 있었다.

프로스페로 공의 눈에 그 유령 같은 형상이 들어왔다. 그 형상은 마치 배역에 더 몰입하려는 듯, 느릿하고 엄숙한 움직임으로 왈츠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공은 처음에는 공포인지 혐오인지 모를 강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미간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누가 감히!" 그는 곁에 서 있던 신하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다그쳤다. "누가 이토록 신성모독적인 조롱으로 우리를 모욕하는가? 당장 저 자를 붙잡아 가면을 벗겨라! 해가 뜨는 대로 성벽 위에서 교수형에 처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프로스페로 공이 이 말을 내뱉은 곳은 동쪽, 즉 푸른 방이었다. 공의 목소리는 일곱 개의 방 전체에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프로스페로 공은 대담하고 건장한 사내였으며, 그가 손을 휘두르자 연주되던 음악도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창백한 안색의 신하들이 프로스페로 공의 곁을 지키고 있는 곳은 바로 푸른 방이었다. 공이 입을 열자, 신하들은 침입자를 향해 움찔하며 움직였다. 침입자는 이미 그들 근처에 와 있었고, 이제는 말하는 이를 향해 의도적이고 위엄 있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가면을 쓴 자의 광기 어린 행동에 일행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낀 탓인지,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덕분에 침입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공의 곁 일 야드 거리까지 다가갔다. 거대한 군중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방 중앙에서 벽 쪽으로 물러나는 사이, 그는 처음부터 보여준 그 엄숙하고 절제된 발걸음을 유지하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는 푸른 방을 지나 자주색 방으로, 자주색 방을 지나 초록색 방으로, 초록색 방을 지나 주황색 방으로, 다시 주황색 방을 지나 흰색 방으로, 그리고 보라색 방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나 프로스페로 공은 순간적인 겁쟁이 같았던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로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는 여섯 개의 방을 가로질러 급히 달려 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도 그를 뒤따르지 못했다. 공은 뽑아 든 단검을 높이 치켜든 채, 도망치는 형체를 향해 거칠고 빠르게 다가갔다. 공이 물러나는 자의 삼사 피트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였다. 벨벳으로 장식된 방의 끝에 다다른 그 형체가 갑자기 몸을 돌려 추격자를 마주 보았다.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단검은 번뜩이며 검은 양단 카펫 위로 떨어졌고, 곧이어 프로스페로 공 역시 그 카펫 위로 죽어 쓰러졌다.

그때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온 광기 어린 용기로, 축제에 취해 있던 무리가 일제히 검은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흑단 시계의 그림자 속에 키가 크고 꼿꼿하게 서 있는 가면 쓴 자를 붙잡았다. 그러나 거칠게 움켜쥔 그들의 손에 만져진 것은 수의와 시체 같은 가면뿐이었고, 그 안에는 아무런 실체도 없었다.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마침내 '붉은 죽음'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한밤중에 찾아온 도둑처럼 소리 없이 당도했다. 축제를 즐기던 이들은 피로 물든 연회장 바닥에 하나둘 쓰러져 갔다. 모두가 쓰러지는 순간의 절망적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마지막까지 즐거움에 취해 있던 이가 숨을 거두자, 흑단 시계의 움직임도 멈추었다. 삼각대에 놓인 횃불의 불꽃도 꺼져버렸다. 이제 어둠과 부패, 그리고 붉은 죽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한히 지배하기 시작했다.